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위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례

제목 :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사기에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전파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립니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손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위조하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는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신종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서민금융 1332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 인지 여부는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원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이므로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례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00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라고 소개한 뒤 금리 4% 대출을 안내했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보낸 뒤 "개인정보니 확인 후 삭제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조된 재직증명서는 00은행 실제 재직증명서와 양식이 달랐다. 신분증과 대출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로 사기범은 대출 보증료로 7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 국민은행 재직증명서 위조 사례

□ 위조된 주민등록증



재 직 증 명 서

직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사	상 호	KB국민은행
	직명 및 직위	KB국민은행 영업지원부 - 대리
	담당 분야	마이너스통장 대출
	재 직 기 간	██████년 ██████월 ██████일부터 2016년 05월 18일 (현재재직중)

□ 위조된 재직증명서



● 대출시 유의사항

대출상담사 사진과 실제 얼굴 대조 확인!!! 어떤 명목으로도 돈 송금 절대금지!!!

- √ 대출상담사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대출상담사가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직접 통화하여 사칭 여부를 확인하시고
- √ 대출상담사와 직접 만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상담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편취한 후 대검찰청 금융수사팀 · 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팀 ·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수사 관련 전문용어(대포통장 · 사기 · 고소사건 · 피소 · 출석요구 등)를 사용함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처벌을 언급하며 공포심 유발
- 금융회사→금융감독원→검찰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유도
- 허위 피싱사이트 개설 후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도
-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직원, 가족, 경찰관 등 타인에게 비밀유지하도록 지시하며, 해킹가능성을 사유로 데이터 사용자제를 지시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통화를 계속 유도(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경우도 있음)하는 방법으로 신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 실제 돈을 받으려 온 경우(대면편취형)
정장 착용, 금융감독원 등 신분증 패용 및 현금 보관서류를 제공하며 신뢰를 줌
- 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라고 한 경우(절도형)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갖가지 이유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거나, 현관문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 두라고 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절취